‘여래 대자비 회상’ 감동 재현하다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5월 3일 봉축점등식
여래 설법 재현 ‘여래공심불등’
설법 동영상 담는 불자 등 눈길
대행 선사 동상 · 본원도 담겨
10년 만 ‘용등’ 리뉴얼 ‘경량화’


한마음선원 도량을 밝힌 ‘여래공심불등’의 모습. 한마음선원은 5월 3일 봉축점등식을 열고 올해 봉축장엄등 ‘여래공심불등’을 공개했다.

매년 연등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이 공개됐다. 올해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은 부처님의 설법 회상을 형상화한 ‘여래공심불등(燈)’으로 여래공심불의 대자비 설법 회상에 울려 퍼지는 법열(法悅)을 담아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5월 3일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불기2570년 봉축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은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등 대중 스님과 최대호 전 안양시장 내외,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점등식은 한마음선원에서 자체 제작한 장엄등과 행렬등, 선원 연희단의 공연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들 장엄등과 행렬등은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의 점등으로 불을 밝히며, 도량과 세상을 비췄다.

올해 한마음선원은 봉축장엄등으로 ‘여래공심불등’을 선보였다. ‘여래공심불등’은 부처님이 만물만생에게 한마음 도리를 깨닫게 하는 대자비의 법을 설하는 회상을 형상화했다. 도상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승가와 재가, 동물과 물고기, 식물 등이 설법을 듣는 모습을 그려냈으며, 뒤로는 참진리의 법음을 노래하는 비천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마음의 문이 구현됐다.

또한 ‘여래공심불등’은 현대적 감로도의 형식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재가 대중에는 다양한 인종이 표현됐으며, 스마트폰으로 부처님의 생생한 설법을 동영상으로 담으려는 신도를 구현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남산타워부터 다양한 인간 군상,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들도 도상에 채색화 형식으로 재현했고,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대행 선사 동상도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점등식에서 한마음선원은 장엄등에 대해 소개하며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돼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는 공심(空心)의 뿌리를 부처님은 오늘도 만물만생으로 나투시며 전하신다”며 “그 가르침이 더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여래공심불과 2600년 전에 영산회상과 다름없이 한마음의 위치를 전하는 부처님의 현대 회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여래공심불등에 한마음으로 불을 밝히며 밝디 밝은 지혜의 빛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전체가 자비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이 같은 대형 장엄등의 제작을 위해 한마음선원 청년회원 120여 명은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직후인 6월부터 기획 및 시안작업에 들어갔다. 12월에는 제작 화합재를 봉행하고, 5개월여 동안 생업과 병행하며 제작 불사를 진행해 완성했다. 사실상 1년 간 장엄등 제작 불사를 수행으로 삼아 정진한 것이다.

채색을 담당한 추주희 장엄등 채색팀장(34)은 “우리는 모두 불성(佛性)을 지닌 존재지만 이를 알지 못해 무명과 번뇌에 빠져 살아간다”면서 “장엄등 제작불사에는 공심(空心)으로 나를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1년간의 불사는 나라는 상(想)을 벗어나는 수행이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각 법회별 행렬등도 소개됐다. 점등식에서는 승단 행렬등 ‘금강저등(燈)’을 비롯해 △신도회 ‘한마음바다등’ △선법합창단 ‘한마음광명등’ △학생회 ‘보배일산등’ △어린이회 ‘둥근한마음의꽃향기등’을 각각 선보였다.


10년 만에 새롭게 조성된 ‘용등’을 이용한 청년회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법회들은 행렬등과 함께 연희 군무 공연을 펼쳤다. 선법합창단은 ‘하나로 흐르는 빛’, 어린이회는 ‘둥근 마음의 꽃향기’, 학생회는 ‘마음의 빛’을 주제로 한 군무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특히 청년회는 공연을 통해 올해 10년 만에 ‘용등’을 새로 제작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리뉴얼된 ‘용등’은 이전보다 경량화를 이뤘고, 디자인도 슬림해진 것이 특징이다. 정원이 기존 26명에서 18명으로 줄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역동적 공연을 펼칠 수 있다는 게 하유성 용등 팀장(40)의 설명이다.

하 용등 팀장은 “골조 재질을 바꾸고 정원을 줄여 경량화를 이뤘다”면서 “이를 통해 역동적인 움직임 구현이 가능하다. 오늘 공연과 연등회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청년회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2인 1조 ‘사자춤등’과 리뉴얼된 ‘용등’을 중심으로 청년회 풍물패,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현대무용, 뮤지컬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점등식 참가 대중의 흥을 한껏 돋웠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회를 비롯한 선원 사부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올해 봉축장엄등 ‘여래공심불등’은 자세히 보면 더욱 디테일하고 아름답다”면서 “점등식에 참석한 사부대중께서 장엄등과 모든 행렬등에 함께 불밝혀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성껏 조성한 선원의 장엄등과 행렬등이 연등회 제등행렬에서 다른 사찰들의 연등과 잘 어우러져 한마음으로 빛을 내 그 의미가 세상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마음선원의 장엄등과 연희 군무를 보기 위해 1년을 기다린다”고 상찬한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은 “오늘 불 밝힌 장엄등 ‘여래공심불등’부터 어린이회의 ‘둥근한마음의꽃향기등’까지 너무 아름다웠다.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공연도 제게 향기로 다가왔다”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향기로운 마음을 갖고 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미타요양병원, 승려복지 기반 자리매김

5월 6일, 개원 3주년 기념법회
지강 스님, 발전기금 1억원 약정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5월 6일 원내 6층 법당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승려복지회

아미타불교요양병원(대표이사 호산 스님)이 개원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의지를 다졌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5월 6일 원내 6층 법당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의료법인 대표이사 호산 스님을 비롯해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전 총무부장 성화 스님, 안성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보라 전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스님을 공경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기치 아래, 조계종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자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개원한 요양병원이다. 감염병실과 치매병실 등을 갖추고 스님들과 재가 환자들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운영하며 심신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입원 스님들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행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려복지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 2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요양병원에는 현재 스님 22명이 입원 중이다.

이날 법회에서 대표이사 호산 스님은 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더 쾌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스님들이 수행의 연장선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승려복지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의료법인 이사인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개원 3주년을 기념해 병원 발전을 위한 1억원 후원을 약정하며 의미를 더했다.

임은호 기자

“어린이날, 조계사 부처님과 함께”

키캡 · 볼펜 · 단주 꾸미기 ‘인기’
놀이 · 명상 즐기는 사찰 놀이터


어린이날을 맞아 조계사 마당에 마련된 키캡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가 주인공, 모두 모여라!’를 주제로 불교체험마당을 개최했다.

오전 11시, 조계사 마당은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로 북적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체험권’을 받은 아이들은 주차장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나섰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키캡 만들기, 볼펜 꾸미기 부스 앞에 가장 먼저 대기 줄이 생겼다. 자개 보석함·도어벨 풍경·단주 만들기 코너도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의 손길로 분주했다.

바로 옆 부스에서는 맑은 싱잉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명상 전문가 은산 스님의 지도에 따라 싱잉볼의 울림을 손과 귀로 느꼈다. 주위의 소란스러움에도 소리에 집중하며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배웠다.

천진불 옆 마당에는 투호 놀이와 널뛰기, 제기차기, 버나 돌리기 등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엄마 아빠의 시범을 보며 제기차기에 도전하는 아이들 옆으로는 비눗방울이 몽실몽실 피어났다. 조계사 포교국장 정오 스님이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들어 내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체험을 마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체험 개수에 따라 소떡소떡, 회오리감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간식이 제공된 것. 게임판 돌리기에서는 인형과 로봇, 퍼즐 등의 장난감이 선물로 주어졌다.

키캡 만들기에 참가한 초등학생 김하윤(12) 양은 “키캡을 직접 꾸밀 수 있어서 좋았다. 책가방에 매달고 다니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영어로 만나는 금강경’ 법회 회향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3월 18일~4월 29일 진행


‘영어로 만나는 금강경’ 법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3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진행된 ‘영어로 만나는 금강경’ 법회를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법회는 청고 스님을 강사로,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 한영(韓英) 합본 〈The Diamond Sutra: The Great Unfolding〉을 교재로 진행됐다.

법회 참가자들은 금강경 구절을 영어로 함께 읽고 뜻을 나누며 경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천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양한 나이와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금강경의 의미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질문을 공유하며 공부의 깊이를 더했다.

법회에 참여한 베일리 헨더슨 씨는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질문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간도 참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연 씨도 “법회가 주는 안정감 덕분에 기간 내내 마음이 편안했고, 자신을 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청고 스님은 “법회 시간은 30분 동안 영어로 〈뜻으로 푼 금강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30분은 함께 참여한 분들과 토론을 통해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며 “자신의 이해와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함께 공유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회를 계기로 계속 영어 법회를 이어가는 방향도 생각하게 됐다. 논의를 거쳐 진행해 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중일 기자

대학생 200명 “참된 불자” 서원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 대불련
5월 2일, 봉은사서 합동수계법회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 대불련 합동수계법회에서 수계자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서울 지역 대학생 200여 불자들이 수계법회를 통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능원 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는 5월 2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전계사로 한 이날 법회에는 홍익대, 연세대, 서울대, 경희대, 가천대, 경기대 등 서울·경기·인천지역 35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법단장 능원 스님은 이날 수계를 통해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게 됨을 축하하며 “한국불교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불자 한 사람으로서, 불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민지 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연비의 흔적은 부처님 제자로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비롭게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도반과 큰 발걸음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계사 원명 스님은 “오늘 받는 계는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근본이 된다”며 “계를 잘 지켜 선한 인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자들은 정한 계를 지켜나갈 것을 서원하고 장궤합장을 한 채 참회진언을 외우며 가르침을 새겼다.

임은호 기자

김포 연운사, 동국대에 장학금

4월 30일, 지역불자에 1000만원
세 차례 후원 “지역과 함께 성장”



김포 연운사, 동국대에 장학금 전달

김포 연운사(주지 진무 스님)가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연운사는 2023년 제48회, 2025년 제104회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4월 30일 서울캠퍼스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포 연운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운사는 동국대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장학금은 김포 출신(거주자 및 고교 졸업생) 재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수여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대한 연운사의 관심이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장학생들도 연운사의 소중한 마음을 되새기며 연운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진무 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연운사 구성원 모두에게 보람”이라며 “이번 장학생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수습기자